

21세기 한국인의 의식과 법문화

이 경 호*

The 21st century, Korean consciousness and the culture of law

Lee, Kyung-Ho

Abstract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s, transportation, information and science made the world one village and all of the information is connected through the internet. The globalization has delivered Korea to the center of world competitions. We need a new paradigm that is not only enforceable of legitimate but also advancement of consciousness ; a society without the control of irrational law.

Our people have always loved peace and manners from the old times. As we respect human-life, human-rights and the opinions of professionals, the culture of sincere law is capable of success. As we attach great importance to honor human's rationalization and fair rivalry under upright rules, the construction of an advanced society keeps on progressing.

Now, we must not expect to accumulate wealth by unlawful means. The improvement of a lawful culture is built on the respect of humans. Therefore, the government has to make an effort to cultivate healthy ideas and use sound thought. It is concerned about enhancement of a people's thoughts and the recovery of humanity. What is more, the administration has to carry out not only to improve its existing system but also to reform the obsolete one by the culture of true law.

I. 지구촌 세계화와 21c 한국의 책무

첨단 각종 전자·교통·정보·과학의 발달은 세계를 1일권으로 만들었고, 드디어 인터넷문화가 지구촌의 모든 정보를 하나의 마을로 연결하고 있다. 신문,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세계 각국의 사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법학부 교수

건, 사고가 우리의 안방에서 매일 매일의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의 각종 산업·정치·문화·경제 등이 하루의 지구권 속에서 보급되고 전달되는 놀라운 세계화 현상을 우리는 매일 실감하게 된다. 이러한 세계의 정보와 지식과 경제, 문화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거나 시골뜨기를 면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세계화의 한 단면이다. 세계화의 숨은 뒤에는 놀라운 국제경쟁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세계화는 한국인의 의식과 문화에 상관없이 한국을 세계의 경쟁 중심으로 인도하고 있다.

세계화의 추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에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한국의 모든 방면에 침투하고 있고, 한국인에게 국제적인 수준의 의식과 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21세기의 세계의 변화와 흐름이 바로 이 의식과 문화의 국제화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세계 각종 정보, 과학, 문명이 생활수준의 국제화를 전시해왔다. 세계화의 거센 물결 안에는 선악의 양면성이 있고 성장과 발전을 향한 무서운 경쟁에 스스로 발을 맞추지 못하면 도태되고 만다. 지구촌 세계화에 상응하는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문화의 저력을 모색하고 찾는 일은 중대하고도 어려운 과제이다.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누구든지 그것이 선의 방향이든 악의 방향이든 삶을 향한 적응을 위하여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폐쇄경제, 공산주의 철의 사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소련 공산주의가 세계경제 흐름과 쇠퇴해 가는 공산주의 의식과 생활문화를 제대로 알고, 그 대책을 적시에 강구하지 못하여 결국 몰락했듯이, 우리 나라도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생활문화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회와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찾아서 국정의 지표표를 제시하고 이에 상응한 한국인의 의식과 생활문화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

국제화의 첫걸음은 한국인이 자기도취적 폐쇄의 울타리로부터 성공적으로 더 큰 세계의 중심부로 나아가는 일이 그 초석이다. 그리고 의식과 문화의 국제화는 우리 스스로의 눈을 내적 자기울타리에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외부적 세계로 향하게 하며 나비가 되고자 스스로 겹질을 벗는 누에고치의 인내와 고통을 감수하고 나서야 얻게 되는 성공이다.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첫 단계는 불가피하게 스스로를 개방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개방은 지구촌 세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일을 의미하고 상호협력과 보완을 말한다.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은 한국인만의 길은 결국 상대로부터 무시와 배척을 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방의 전제는 스스로 자기를 정립하고, 자기를 외부에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내어놓는 일이다. 따라서 중요한 자기 성찰과 중대한 자기 결단을 위한 정직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개방화는 상대를 존중하면서 상대를 통하여 나의 약점과 치부를 수정하고, 상대의 약점을 보완하고 치유해주는 일이다. 또한 나의 장점을 더욱 갈고 닦아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이를 통하여 상대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기를 때 성공할 수 있다. 개방화는 모자람과 허물을 보완하고, 좋은 장점과 가치를 함께 공유하며 공감하는 자세이다. 개방화는 바로 개성화, 특성화의 문제이다. 먼저 한 개인이 스스로 깊은 자기 성찰과 동시에 자기예를 바탕으로 한 분명한 자존심의 확립을 통하여 이룩된다.

우리는 바야흐로 민주화, 자치화를 구축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고속성장을 바탕으로 한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다. 동시에 세계 각국의 이목도 우리에게 집중되고 있다¹⁾. 21세기를 향한 세계의 흐름은 세계가 자율적 의사가 아니라, 타율적으로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를 요구받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권리이기 보다 우리의 의무로 강요되고 있으며, 우리의 이익이기 보다 세계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요구받고 있다.

세계화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경제적 이익, 무역수지의 확보와 외국의 생활문화, 국제관광여행, 외국어 습득 등 외양적이거나 지협적인 정도와 상식밖에는 지니고 있지 않다.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외국의 높은 생활수준을 보고 듣고 따라가는 일등은 세계화를 위한 기초의 하나일 뿐이다. 한 나라의 진정한 모습은 국민정신과 역사의 잠재력 속에 감추어져 있을 것이고 그 나라의 진수는 국제경쟁의 승리를 위하여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세계의 참모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연구가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 나라의 단점과 장점을 알고, 세계 각국의 우수함을 알고 나를 성찰하여 보아나온 한국을 위하여 하나 하나 우리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이웃의 세계가 갖고 있지 않은 우리 나라의 것, 우리 나라의 환경, 도덕성, 문화, 우리의 국민정신을 잘 가꾸고 찾아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키워내야 하고 동시에 세계의 문화에 이바지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

선진국의 길은 이웃나라, 다른 나라를 닮거나 따라가는 일만이 아니다. 오히려 이웃이나 다른 나라가 갖고 있지 않은 고유한 우리의 자랑거리를 가꾸고 기르는 일이다²⁾.

우리 것을 세계의 자랑거리로, 국제적인 수준으로 만들 때 세계의 보탬이 되고 우리 스스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것을 멸시하고 천시하는 천민사상과 사대주의 사상은 이제 우리가 씻어야 할 역사적 과제이다. 우리 것이라면 일단 부정하고 나쁘게 보는 패배주의를 지양하고 긍정적 자존심을 확립해야 한다.

우리가 IMF 직전만하여도 세계 12·3위(인구 4천만 이상이고 GNP 만불이 넘는 나라 중에서는 제9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지만, 문화·정신가치나 질서 면에서는 그 역량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는 경제적인 면뿐만이 아니며, 교육, 행정, 정치, 문화 등 다방면에서 요구되는 그 모양과 정도는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세계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물질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사상적 의식의 선진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국가적 인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우리의 자존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한 국민의식의 전환없이는 누에고치가 나비로 탈바꿈할 수 없다. 돈이면 제일이라든가 경제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다든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회와 국가는 아랑곳 없다든가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은 어떠한 내용도 가리지 않는 수입상품의 보

1) 1995년 3월, 월 스트리트 저널지에 의하면 아시아의 4마리 용-싱가포르, 대만, 홍콩, 우리 나라가 세계 1국으로 편입된 적이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2가지 면에서 여전히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외자와 외국기술에 의존하고, 둘째, 대학의 수준이 경영의 혁신이나 기업의 기술개발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고, 셋째, 관료주의에 그 이유를 들고 있다.

2) 우리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노력하고, 삼면이 바다인 해양환경, 자랑스러운 우리 것, 애민·충효의 사상, 백의민족, 동방예의지국, 다정다감, 풍부한 인심, 불우한 이웃돕기, 아름다운 금수강산, 뚜렷한 사계절과 감정의 표현, 인간관계를 잘 나타내는 감성이 풍부한 한글, 백두산정기, 김치, 고추장, 된장 등 우리 고유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찾고 가꾸는 일이다.

급사용 등은 우리 스스로를 무시하고 낮추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한결 같이 선진정신이나 자랑거리를 그 나라의 이미지 메이킹과 상표로서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의 강인함·신뢰감, 프랑스의 맵시, 일본의 정직성·정밀성, 미국의 개척정신·청렴성, 영국의 신사도 등은 그 예의 하나다. 선진국의 상품은 이러한 선진정신문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세계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오늘날 지구촌이 메마른 세계화의 경쟁과 인간의 존재적 고독 속에서 열병을 앓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세계 최고의 상징이고 자랑거리이며 휴머니즘의 산실인 “넘치는 정”을 가지고 있다³⁾.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 정을 불의에 함몰한 나약한 정이 아니라, 의로운 정”으로 바로 정립하고, 세계 속에서 한국인의 의식으로 높이고 세우는 일이다. 이것은 세계화의 물결 안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Ⅱ. 한국인의 의식과 무규범(ANOMIE)현상

우리 나라 5천년 역사상 그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불과 반세기만에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의 사정은 심각한 혼돈 속에 빠져있다. 풍요로운 물질의 축복 속에서도 사람들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며, 이웃들 사이에 우정보다는 배신으로, 사랑보다는 미움으로, 누구에게 언제 다가올지도 모르는 예기치 못한 위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해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사회는 인생의 참된 가치를 간과한 채 행복을 짓밟는 행복의 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⁴⁾.

우연이거만을 바라는 비정한 사건들을 가슴에 담아보면서 어린 시절 비록 가난한 살림살이었을 망정 훈훈하고 따듯했던 이웃간의 넘치는 정이 그리울 뿐이다. 경제적 성장의 대가로 잃어버린 귀중한 인간가치의 손상을 어떻게 하나. 지금 한국의 기성세대는 물질 만능주의와 전근대적 법의식, 부패된 시민의식으로 고통받고 있고, 청소년들은 극단적 이기주의, 질서의식의 상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가치의식의 상실 등 심각한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퇴폐적 X세대, 오렌지족, 야타족 또는 입시지옥, 공급자주의의 교육제도 등에 시달리고 지쳐버린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이로 인해 아름다운 삶과 젊음을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생활현상과 사회의 구조는 이미 법의 권위를 잃어 버렸고, 법의 문제 이전에 무규범적인 삶과 생활의식의 문제이다⁵⁾. 이 모든

3)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부인 보바르가 우리 나라를 방문했을 때 “한국은 부자지간의 정, 효가 세계 제일의 국가이고 그것이 가장 부럽다고 말했다.”

4) 부모자식간의 살해, 오로지 돈을 많이 가진 것만으로 저질러지는 지존파의 살인만행, 대형탈세사건, 택시기사 여인납치·살해사건, 장교 무장탈영 난동사건,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에서 시작하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그리고 사회의식으로 이어져 가는 에고이즘과 불신의 팽배는 우리 나라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기에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5) 무규범적 삶은 비단 법을 위반하고 악행을 일삼는 생활형태만이 아니다. 비록 불법이 아닐지라도 도덕성의 상실과 전도된 가치의식이 초래하는 불행한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남의 몫까지도 빼앗아서 자기의 것으로 삼고, 결과만을 생각하고 과정은 무시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민의식의 상실이다. 광의로는 범죄이기도 하나 도덕성과 가치의식을 상실한 비행이나 탈선행위를 의미한다.

것이 자라나는 새 세대가 지고 가야 할 책무이며, 자가용 시대와 선진국 문턱에선 경제성장이 주는 부작용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는 지금 무규범적 가치관의 혼돈과 황금만능주의 그리고 사회의 급변으로 인한 다양각종의 갈등, 무사안일, 책임의식의 상실, 극단적 이기심 등으로 인하여 만성적 악성질병을 앓고 있다. 사회의 급변으로 인한 다양각종의 갈등과 남북한의 대결 등 급진적인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산적한 문제는 그 치료법을 찾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합법과 불법의 두가지 큰 갈림길을 헤아려 볼 수 있다.

합법적 삶은 법대로 살아가므로 매우 정당하고 분명한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삶은 결코 남의 몫을 빼앗지도 아니하겠지만 그렇다고 나의 몫의 이면에는 이웃의 궁핍과 고통을 이웃자신의 문제로만 여기고 자신은 좀처럼 관여하지 않으려는 면모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합법적 삶의 길도 동양적 사고 속에서 볼 때 매우 인색한 인생살이로 비쳐진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법대로 하자는 사람을 좋게 보지 아니하고, 도덕적 측면에서는 비교적 인정 없고 냉혹하여 악한 사람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합법적 삶 이상의 매우 높은 정신적·도덕적 가치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새로운 의식이 요망되며, 합법의 강요가 아닌, 법이 없어도 함께 어울려 사는 길, 즉 의식의 선진화가 요구된다. 우리 인간 사회생활이 누구를 막론하고 장점뿐이거나 단점뿐일 수는 없으며, 항상 풍족하거나 부족할 수가 없다. 우리 삶의 길이 언제나 이웃을 위하여 나의 몫까지도 남에게 주는 삶으로 충만될 수는 없다.

우리 사회가 至高至善의 길에 서지는 못하더라도, 남의 몫까지 빼앗으려는 부도덕한 삶의 틀에서 벗어나 나만의 이기심을 지워버리고, 너와 나의 공생·공존·공영을 위한 양보와 아량, 그리고 건전한 상식과 살아있는 양심을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합법적 삶, 즉 결코 나의 몫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합법의 한계에서도 한 걸음만 더 앞선 사회라면 어떨까. 직장·사회·국가를 위해 능력껏 희생과 봉사의 짐을 질 줄 아는 시민의식의 성숙⁶⁾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최고가치는 법과 인간을 존중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홍익이념일 수 밖에 없다. 백두산 정기, 금수강산(뚜렷한 사계절과 감정의 표현), 풍부한 인간미(다정다감), 넘치는 이웃애(경조사, 상부상조), 인간미 넘치는 한글, 애민·충효사상 등 백의민족과 동방예의지국의 자존심과 긍지는 분명히 중요한 우리의 삶일 것이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과 의식의 선진화를 우리 사회는 지금 목말라 하고 있다. 이것이 다만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남(타인)의 문제였을 뿐이다. 이제 그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인정한다면 이것이 바로 선진국민, 선진사회의 기틀이고 우리 정신의 새로운 출발이다.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대한 情理와 배려가 나를 이롭게 하고 참으로

6) 시민의식의 성숙은 우리 모두를 성장시킨다. 부족한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포근한 마음, 이웃의 요구에 다 응하지 못하더라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정성, 길을 묻는 나그네에게 작은 시간을 배려해 주는 친절한 안내, 미움과 시기와 갈등 속에서 이를 다 포용하지는 못하더라도 기피와 방관보다는 함께 안고서 고쳐하는 마음, 이웃의 과실을 빙그레 웃어 넘길 수 있는 관용의 사회…… 이것이 바로 함께 더불어 사는 선진의식과 생활의 지혜가 아닐까?

자기를 진실로 위하는 진정한 이기가 아닐런지.

참된 이기는 진정 이웃과 더불어 사는 길이고, 서로가 도와주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풍요를 원하고 가꾸며 기르는 길이다. 오늘의 가치관의 혼동과 위기의식을 기회로 우리의 정신적 가치를 새로이 하고, 그 빛을 밝혀서 세계의 햇불이 되는 일이다.

Ⅲ. 한국인의 법의식과 생활문화

우리의 법은 대륙법의 영향을 받아 관념론, 목적론을 바탕으로 한 이성적 판단에서 찾아왔다. 즉 머리 속의 思考에 의존하여 옳고 바른 법이 무엇인가를 찾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고 속에서 나온 법의 역할은 주로 평가와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되는데 그쳤다. 따라서 법이 생활과 유리되어 상호 협력과 생활이익을 도모하고 높이는 일을 하기보다는 오로지 평가와 사후적 제재의 수단이 되어 온 것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법문화가 흔히 현실과 동떨어진 논리와 가치관의 갈등과 명분의 모순에 빠져 국가와 사회의 힘을 소모시키기도 한다⁷⁾.

우리의 입법활동이 주로 특정목적이나 정책에 따라 “머리와 생각 속에서 가장 옳고 바른 것이 무엇일까”하고 찾아 왔고, 생활현장의 상태나 의식의 檢證이 없이 입법화해 왔다.

따라서 법과 현실의 거리는 하늘과 땅처럼 벌어지고, 이것은 결국 법과 생활문화의 이원화 현상을 초래하였고, 법의 집행과 목적을 달성하는 일은 오로지 사후 약방문인 “법의 파괴자에 대한 사후적 제재조치”라는 법적 강제와 보복에 매달려 왔다.

그 법의 집행은 특정목적과 정책의 비중과 크기에 비례하여 오로지 법의 물리적 힘, 국가권력과 강제력에 의존해 왔고, 이러한 힘에 의한 법은 결국 간헐적이고 부작위적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법과 현실생활의 불화에 그 요인이 있고, 만일 법대로의 정확한 법의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거의 모든 사람이 위법자 또는 불법 생활인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법의 집행은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법의 목적과 정책의 비중에 반비례하여 무시되고 소홀히 되거나 집행자의 자의적 자비에 의존하게 되고 만다⁸⁾.

7) 미국의 경우에 법이 생활현장 중심이고, 경험론을 바탕으로 실용적·현실적 법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대륙법을 바탕으로 그 체계를 잡고 있는 우리의 법적 사고와는 대조적이다. 미국의 법은 대학의 강의실 또는 법전 속의 법과 미국인의 생활 속에 스며 있는 법은 우리의 법문화와는 달리, 생활문화 속에 동화되어 있다. 법과 대학 강의실보다도 미국인의 사회생활 속에서 더 많은 법의 실체를 맞보고 부딪칠 수 있다. 평균적인 미국인이 가진 법에 대한 상식과 생활화는 우리 나라의 법률 전문가 내지 각 전문 분야의 종사자들보다 오히려 앞선다.

8) 미국인의 의식과 문화에는 깊고 넓게 법적 힘과 가치관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미국의 법과 생활문화에 대한 실증적인 몇 가지의 사례를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다. 첫째로, 미국의 법문화와 생활의식이 철저하게 “Balance(형평성)” 위에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인의 생활문화에 깊숙이 깔려 있는 “Balance”의 개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법의 내용이 생활문화 속에서 개별화, 실용화되어 있고, 그 집행과정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물건을 살 때나 돈을 주고받을 때, 거스름돈을 지급하고 받을 때, 주고받는 물건과 돈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없는 정확한 상호균형에 바탕을 둔 “Balance”에 입각하여 생활하고 있다. 물건을 사기 위하여 돈을 내면, 그 돈에 정확하게 맞추어 해당 물건과 나머지 거스름돈을 큰 돈 작은 돈 나누어서 하나 하나 셈하며 정확하게 일치시켜 보여주면서 계산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내야 할 수업료의 요구도 “Balance”의 요청으로 이루어진다. 학생이 배운 것과 그에 상응하는 형평성으로서 수업료를 요구한 것이다. 은행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현금의 입금이나 출금할 때, 언제나 우리가 사용하는 “잔고”라는 말을 “Balance”라는 용어로 쓰고 있다. 즉 입금과 출금의 “균형과 형평”을 의미한다. 영수증에도 잔고를 “Balance”라고 표현되고 있다.

법의 집행력이 현대의 복잡한 각종의 공공생활이익과 이를 수호하는 각종 행정규범에서는 더욱 무력해지며, 법의 역할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기 십상이다. 더욱이 궁극에는 법을 지키는 자는 손해를 보고, 법의 망을 피하고 살아가는 자는 유익함을 누리는 악한 사회를 만들게 된다.

우리의 법구조는 이성적 당위성에다가 강력한 국가권력의 뒷받침을 받는 강제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법의 실현과 문화발전의 이바지는 얼마나 옳고 바른 법을 찾아내느냐, 그것을 얼마나 강력히 실현하느냐는 두 가지의 지극히 모순된 결합체에 의존해 온 것이다. 여기에는 이성적으로 어떤 법이 옳으나 하는 것일 뿐,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느냐의 과정이 소홀히 된 것이다⁹⁾.

선진국으로부터 도입된 좋은 법이 입법화 되었을지라도, 그 법이 우리 생활문화에의 정착을 위한 세밀하고 정밀한 수행과정과 사회의식과 문화의 변화와 차이에 대한 과학적 실증적 탐구가 생략된다면 법의 목적과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만이 메아리치게 된다. 따라서 법이 국가와 사회의 유용한 도구로 작용하지 못하고 법집행자와 권력의 자의적 도구로 사용되기 쉽상이다.

이 때 그 법은 사회에서 생명력을 잃고, 이미 법이 파괴되고 난 후에 그에 대한 대가로서의 보복과 법의 권위의 회복을 위한 힘의 행사만이 남는 것이다. 법이 오로지 법 자체의 목적과 권위의 유지를 위한 법적 강제에 의존한다면 법은 스스로 자기 울타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자승자박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법의 생명력과 힘은 법이 생활문화와 그 문화를 이끌어 가는 의식과 정서, 그리고 생활현장과 환경에 뿌리를 내리느냐 못 내리느냐에 달려 있다. 법이 자기 자리를 잡고 생활 속에서 가야 할 길을 찾아 갈 때, 법문화의 생활화와 의식화는 가능하게 되며 동시에 건전한 사회의식과 생활문화 및 환경을 만들게 될 것이다.

법과 생활문화는 고기와 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고래는 큰 바다에서, 붕어는 맑은 강물과 수초 아래에서, 미꾸라지는 뺨물에서 그 생명력과 힘을 지닌다. 금붕어를 어항에 기르는 일도 어항의 크기와 물이 맞아야 성공할 수 있다. **Check and Balance**(견제와 균형) 위에 튼튼히 자리잡은 미국의 민주주의 헌법을 도입한 우리나라, 필리핀, 태국 등 아시아 각국이 같은 헌법으로 한결같이 독재 권력의 수렁에 빠졌던 것은 실증적 예이다¹⁰⁾.

9) 법의 힘을 통하여 기강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고, 청교도 정신에 입각한 독창적인 문화의식과 창의력, 세계 최고 미국인의 생활 속에는 법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sue(소송)"한다는 말이다. 물론 미국인의 법의식에는 양면성도 있다. 미국이 망한다면 법과 의료 때문일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 말에 귀를 기울려야 할만큼 미국인들의 생활에는 법률비용과 의료비용이 대단한 비중을 지니고 있고 위협적인 존재이다. 이런 사실들을 미루어 보아 여러 가지 의미 있고 재미있는 미국의 실체와 법문화를 추론할 수 있기도 하다. 미국이 큰 나라이며, 복잡한 인종의 갈등 속에서도 세계최고의 기술과 힘을 가진 국가라고 자부하는 저변에는 법의 생활화와 법문화의 힘이 깔려 있다는 사실이다.

10) 선진국 특히 영미의 경우에 법이 실용성과 현실성의 바탕 위에서 생활속에 살아있으며 생활화된 "법문화의 Balance"를 볼 수 있다. 그야말로 실용성과 합리성에 입각한 개별화된 입법과 빈틈없는 법의 집행과정이 있다. 생활의 유용성을 바탕으로 과학 기술화되어 있고, 법의 집행이 사후적인 법의 강제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법을 위반한 행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법의 집행력과 그 권위가 살아 있다. 따라서 법을 위반해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영미의 법문화는 법과 현실이 둘이 아닌 하나이고 생활문화 속에서 조화와 일치를 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로교통법규나 도로교통현실이 다르지 아니하고, 법학연구소나 강의실의 법과 생활현장의 법이 하나의 사건과 생활을 통하여 형성되어 있다. 바로 사회생활현실 속에 법의 이론과 원칙이 있음을 보게 된다.

따라서 법의 내용이 아무리 옳고 좋은 것이라도 그 법이 생활문화와 의식 속에 융화되지 못하거나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집행되는 방법과 절차가 바르지 못하면 그 생명력과 힘을 잃거나 오히려 악법이 되기도 한다.

생활 속에 살아 있지 못한 법은 법의 정의와 강제라는 모순된 논리의 혼돈 속에서 오히려 법과 생활문화를 더욱 유리시키는 갈림길에 놓이기도 한다.

이솝의 우화에서 여우가 두루미를 초청하여 대접하면서 맛있는 수프를 접시에 담아서 주었다. 물론 두루미는 이것을 먹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분개하여 돌아갔고, 이에 대한 복수를 한다. 좋은 법일 수록 좋은 수행방법을 필요로 한다. 본래부터 악한 법은 없다. 비록 선한 법일지라도 그 목적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거나 인간의 이기적 욕망의 개입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악법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생활속에 살아 있는 법이란 생활문화와 의식의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

우리 법의 대부분이 서양에서 계수된 것이고, 특히 독일의 이성법에서 계수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서양에서도 경험론을 바탕으로 한 실용주의 현실주의의 영미의 법과 관념론을 바탕으로 한 이론주의의 대륙법은 그 사고방식이 매우 다르다. 법은 같은 법이지만 법을 바라보는 위치와 그 실현대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대륙의 법은 사람의 머리에서 보고 내면적 의식을 대상으로 했다면, 영미의 법은 사람의 손발에서 보고 외부의 생활의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성적 논리와 생활 현장의 차이이다. 어느 법이 좋고 나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하여튼 우리의 형편이 서양에서 좋은 법을 많이 수입해야 했지만, 법안에 숨쉬고 스며 있는 생활문화와 법의식은 수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법의 계수는 생활문화와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생활과 법의 이원화 현상을 만들기 쉽고 우리도 그 예외는 아니다.

우리 법문화에서도 법을 어떻게 생활문화에 정착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는 입법 그 자체보다 더욱 중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하여 편식할 이유가 없듯이, 법제도의 도입에도 그것이 어떤 사고방식의 문화이든 즉, 경험론이든 관념론이든 편애할 이유가 없다. 중요한 것은 법의 계수 그 자체보다 그 법이 우리의 생활문화와 의식 속에서 어떻게 얼마나 유용한 값어치를 지니며 법 본래의 목적과 국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이다.

공산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사회구조에 결합시켜 안정과 자유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오늘의 중국을 재건한 중국의 위대한 지도자, 덩소평이 남긴 실용주의 생활노선 “黑猫 白猫論”은 우리의 법문화에도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세계는 한 가족이고 이성적 사고와 생활현장은 하나의 법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법문화도 독특한 고유의 생활문화와 법의식의 형성을 통하여 세계 속에서 그 값어치를 쌓아 간다. 법과 생활문화의 조화와 일치 속에서야말로 그 국가와 사회의 의식이 비로소 생명력을 지닌다. 우리의 법의식 안에는 이 점을 소홀히 하고 있는 셈이다.

Ⅳ. 의식의 성숙과 법의 생활화

말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말을 강가에 끌고 가는 일은 아주 쉬울 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는 일은 쉽지 아니하다. 즉 말에게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할 수는 없다. 말이 스스로 물을 찾고 마시도록 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아무리 옳고 바른 법, 합리적인 법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바탕이 되는 생활문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강제로 말에게 물을 먹이는 것과 같이 부작용과 모순된 결과를 낳을 지도 모른다. 따라서 법의식은 생활문화와 사회의식을 높이고 세우는 일에 앞장서므로 스스로 법의 권위를 지키고 유지하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의 생활문화와 의식은 서양에서처럼 이성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가슴속에서 나오는 감성적 사랑이나 정서에 바탕을 두었고, 가슴과 머리가 하나의 마음에 내재되어 구별되거나 나누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동양의 사고나 철학은 靈과 肉이 한 덩어리로 융화 내지 혼재해 있었고, 우리의 사고도 머리와 가슴을 나누지 않았으며, 이성과 감성이 융화된 정서를 지니고 있는 민족이다.

예컨대 孝의 사상이 그 실증적 증빙자료의 하나이며, 우리 민족의 정서와 마음속에는 온유와 끈기 속에 담겨져 있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깊은 情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보면 비록 오늘 우리사회가 이기적 물질주의로 인하여 허세와 모방적 과시적 탐욕에 빠져있고, 효는 화석화되어 충효사상과 봉건적 유교적 전통질서로서만 남아 있고, 효의 실체와 내용은 퇴색되고 훼손하여 꺾절만 남게 되었다. 정은 물질문명에 병들어 정직함을 잃고 의롭지 못한 우리사회의 의식과 영합하여 부정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어 버린 안타까움이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법이 입법자들의 머리 속의 생각과 국가권력의 손끝에 매달려 있지만 말고, 우리 민족의 뛰어난 민족정신과 문화전통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법이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활화되어야 할 것인가를 각 분야에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재검토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법의식은 불의와 연결된 정이 아니라, 의로운 정을 세우고 높이는 법문화와 사회의식의 씨앗을 심고 소중하게 가꾸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이는 불의와 갈등의 늪에서 허덕이는 우리 사회의 문제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메마르고 기계화된 인간의 위기를 구하는 길이며 세계 속에서 우리문화를 꽃피우게 될 우리 민족의 자량거리와 자존심이 될 것이다.

오늘날 한국법학의 과제는 우리의 의식과 생활현장에서 법문화를 바로 알고 세우는 일이고, 법문화를 생활의식의 초석 위에 튼튼히 쌓아올리는 일이다. 학자·법학도·입법자·국가정책입안자는 그 동안 도입하고 계수한 법과 제도를 강제력의 손끝에서부터 우리 생활문화와 의식의 바탕 위에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법문화력으로 쌓아 올리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혼탁해진 생활문화와 전통을 급변하는 과학기술과 정보문명의 발전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사회의식과 삶으로 고치고, 동시에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 있는 민족정신과 긍지를 바로 세워, 이를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살아 있는 법을 만들고 고쳐야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의 과학적 실증적 탐구와 意識의 대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우리의 연구는 판단 그 자체가 아니라, 판단의 대상에 대한 이해와 핵에 이르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법과 생활, 이성적 당위와 현실적 생활문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조화와 일치가 요구되며, 어떻게 법과 생활의 일치와 조화를 달성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르러 있다.

이것은 법과 생활의 이원화 속에서 형성된 경제제일주의·물질만능주의·외형주의·가식주의·허식주의를 개선하는 의식의 개혁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법의 생활화는 동시에 의식의 전환에 그 기초가 있는 것이다.

그 시발점은 급속한 물질문명의 성장에 부수하여 생겨난 병든 의식과 체질을 개선하고, 동방예의 지국이었던 우리 민족의 긍지와 정체성을 회복하여,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생활문화와 의식을 형성하고 법과 생활현장에서 이를 세워 나가는 일이다.

요컨대 이러한 민족의 정체성과 생활의식의 개선을 바탕으로 생활현장에서 법을 찾아내고 발견해야 한다. 이는 경제중심이 아닌 인간의 생명존중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면적 자아의식을 성숙시키고 높이는 일이다. 이렇게 될 때 법은 생활 속에서 살아 있게 되고 생활의 유의성을 생산하게 되며, 국가사회의 기둥으로서 창조적인 힘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의식과 법이야말로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정직하고 땀 흘리는 사람이 잘살게 된다”는 환경과 의식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당면 과제는 법과 생활의 일치와 조화를 도모하고, 성장과 경제 제일주의가 아닌 균형과 안정을 통한 창조적인 질서와 생활문화와 의식을 형성하고 가꾸는 일이다. 이것이 한국의 법학과 오늘날 우리 나라가 안고 있는 최고의 가치처럼 되어 버린 경제적 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허식과 과시, 물질주의와 외형주의에 사로잡힌 병든 생활체질과 법문화의 과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V. 새 천년을 향한 한국의 가치

우리 국가의 50년대, 60년대, 70년대의 “잘 살아보세¹¹⁾”라는 비전, 80년대 선진국 경제를 향한 비전, 90년대 세계화와 복지국가건설, 민족공통체회복이라고 하는 민족과 국가의 대비전 등은 새 천년을 향한 오늘의 한국이 가진 과제와 가치이다.

가난했던 해방세대들에게는 가난의 해결이 인생의 목표이자 사명이었다. 6.25세대인 나의 어린 시절에도 종종 보릿고개를 겪어야 했다. 그리고 배고픈 때의 빵(富)은 생존의 문제이다. 그러나 배고픔을 해결한 축적된 부가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예고이즘과 황금만능주의로 흐르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가치기준의 중심이 사람의 인격이나 자연의 은혜가 아니라, 오로지 싸워서 거두는 경제와 부에 놓여 있다. 돈이 사람과 사회를 지배하고, 인격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서 경제중심의 편중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

돈중심의 편중된 사회는 타락하고 병들기 마련이다. 성서에 최악의 성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을

11) 가난은 참으로 우리의 생활과 사회와 국가에 가장 큰 고통의 대상이다. 제3공화국 때부터 지금까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 가락과 더불어 앞으로만 돌진해 왔다. 제4공화국·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이제는 굶주린 허리띠를 풀 수 있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최고록에 의하면 당시 새마을 운동이라고 부른 가치의식과 비전의 제시를 통하여 국정을 세워 나갔다)

찾지 못하여 멸망했고, 돈과 하나님은 함께 섬길 수 없으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다. 의인을 잃어버린 부는 오히려 국가와 사회를 해친다.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경제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의 창의적인 활동과 그 문화수준이다.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도 경제제일주의를 반성하고 경제중심의 사회에서 인간중심의 사회로 그 가치의식을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보다 높은 인간의 성숙이 없이는 국가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사회의 선진화는 불가능하다.

우리 국민은 기질적으로 다정다감하여 인간미가 풍부하며, 백의민족·동방예의지국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사람의 생명과 명예와 인격이 중시되고 전문가의 권위가 중시될 때 사회정의와 질서가 확립되고 정당한 규칙 위에서 합리성과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법문화가 가능할 것이다. 선진사회의 구축은 인간의 존중과 사람의 땀방울이 중시되고 그 국민이 진실하고 용기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가 졸부문화를 버리고,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세우는 성숙된 문화를 가꾸고 높여야 한다.

경제는 경제인에게 맡기고 정치·행정·교육이 경제보다는 인간가치를 높이고 바로 세울 때, 경제도 그 주인을 바로 찾아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사회와 경제의 새로운 성숙도 앞당길 수 있다.

수준 낮은 축구는 공을 보고 차고, 성숙된 축구는 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을 움직이는 사람을 본다. 또 등산을 할 때 자동차나 케이블카로 간편하게 오른 경우와 땀을 흘리고 계곡과 숲을 거쳐 오른 경우는 정상정복이라는 결과는 같으나, 그 과정이 다르므로 그 가치에 대한 평가도 전혀 같을 수 없다.

우리 헌법 제9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헌법의 선언은 모든 법의 기초이며, 최고이며, 근본요소이다. 다른 모든 법규범들이 그 지배하에 있고 그 구체적 실현과 보장을 위한 제도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우리의 모든 것이며 국가에 대한 지상명령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인간다운 삶을 의미하고 휴머니즘의 핵이기도 하다.

인류의 역사는 휴머니즘의 드라마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처절한 투쟁의 현장이다. 고대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는 역사의 단락은 인간성의 회복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현실의 변화이다. 고대에는 자연의 두려움으로부터, 중세에는 신의 권위로부터, 근대는 국가의 절대권으로부터, 현대는 인간의 과학과 기술에 의한 자연과 인간성의 파괴로부터 심각한 휴머니즘의 도전을 받고 있다.

인간의 기술과 발전된 산업이 때로는 인간 자신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무너뜨린다¹²⁾. 지금 우리사

12) 미 과학자들 복제 원숭이의 생산을 성공했다. 미국의 과학자들은 13일 초기단계의 배아를 분할한 후 그 조각들을 어미 동물에 이식하는 방법을 이용, 원숭이를 복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오리건주 포틀랜드 소재 오리건 보건과학대학의 제럴드 세튼 교수가 이끈 연구팀은 14일자 과학전문지 '사이언스'에 상세히 밝히고 있는 '배아 분리'라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 생후 4개월 된 '테트라'라는 이름의 밝은 빛 눈을 가진 붉은 털 원숭이암컷 1마리를 복제했으며 앞으로 4마리가 더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전학적으로 동일한 원숭이들을 이용, "자연과 양육"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유전적인 요인과는 별도로 환경적인 요인이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신기섭 특파원 2000년 1월14일 오전 9:36) 인간의 복제가 현실화되었고 오로지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에 대한 가치만 남아 있다.

회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파괴로 휴머니즘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인명과 땀방울이 경시되고 있고, 전문가의 권위를 경시하는 사회 의식이 팽배하고 있다. 선진국가와 사회는 단순한 부정부패의 척결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 국가의 사명은 국민의식 속에 이미 나타난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근본적 분석 위에 가치관의 오류를 바로 잡는 일이다.

따라서 국가는 건전한 상식의 함양과 국민의식구조의 전환에 힘써야 하고, 국민의식의 선진화와 인간성 회복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한다. 사회윤리와 교육과 문화가 인간과 자연의 조화, 이웃과 이웃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의 구축에 이바지하고, 국가는 이를 위한 의식의 개혁과 더불어 법문화를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의식의 함양 없이는 건강한 법과 생활문화의 성숙은 불가능하다. 이를 위한 몇 가지의 제안을 찾아보자

첫째, 법의 집행과 행정담당자의 책무는 철저한 자기개혁을 통하여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식의 성숙과 법의 생활화에 앞장서야 하고, 국민의 정신적 가치와 교육 및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우리의 전통 속에 묻혀 있는 고유한 얼과 자랑거리를 발굴하고, 이를 국민생활문화 속에 전파시키는 일이다. 우리의 이웃사랑, 상부상조정신을 생활 속에 제도화시키는 일이다.

둘째, 정치가와 경제인은 오로지 생존을 위한 경제에만 편중할 일이 아니다. 성숙된 정치와 경제는 국가와 사회의 부가 가치를 높이고 창조하여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그 본연의 모습이다. 21세기 원년에 한국이 할 일은 새 천년을 향한 휴머니즘의 기치 아래 새 마음, 새 정신을 가꾸고 창조하는 초석을 놓는 일이다.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의 문제를 알게 하는 일이다. 의식있는 성실한 삶을 위한 정직(백의민족), 정의를 향한 용기(열정), 이웃에 대한 사랑(정)이 바로 우리민족의 얼과 정이고, 비전이며, 성숙된 새 천년을 향한 한국인의 의식이고 덕목이다. 우리의 국가와 민족정신의 풀뿌리를 의미한다.

셋째, 언론과 시민단체의 역할이다. 그 자신이 여론과 상업주의에 치우치지 말고, 진실과 상식 위에 살아있는 국민의식의 참 공기와 소리가기 때문이다. 언론과 비정부적 민간조직이 진실의 소리와 국가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의식의 개혁과 법의 생활화를 전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일이다.

넷째, 교육은 의식과 생활 문화의 초석이다. 오로지 1등을 위한 경쟁교육이나 결과주위가 아니라, 전인격 교육을 바탕으로 세계를 알고 그 속에서 한국의 가치와 사랑을 알게 하는 일이다. 더 나아가서 한국의 교육이 생존을 위하여도 획일화에서 벗어나서 개별화·전문화·특성화를 지향하고 그 효율성과 투자 가치를 높여야 한다¹³⁾. 적어도 초등교육은 성적의 평가와 공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진실한 품성과 가치의 추구, 질서생활, 예의, 봉사활동 등 법과 도덕의 생활화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또한 건전한 정신의 함양을 위하여 체육, 취미활동, 레크레이션 등 특성을 강화시키는 일이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이다. 인명을 중시하고 정당한 노력과 그 결과만이 자랑스러운 평가를 받는다. 건강한 한

13) 미국 MIT 석좌 교수(95. 3월 중순 한국을 방문기자회견에서)· 국가의 분배기능(제로섬 경제이론)을 강조하고, ·브레인파워의 시대에 교육의 중요성과 투자 가치(세계 최고의 교육수준과 투자효율성으로 독일을 꼽고 있음)를 강조함.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제일로 들었고, 단 이러한 교육투자가 생산성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말하고, 공산권(구소련과 중국의 대비)의 교육투자와 그 효율성의 문제점을 들고 있다. 1) 국가의 백년 사업은 교육, 2) 비전 있는 전문가의 양성, 3) 후손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교육의 3대 목표가 필요하다.

국의 사회의식과 법문화를 만들도록 국민이 모두 힘을 모으고 동참하게 하고, 이를 위해 스스로 인내와 협조와 양보의 힘을 기르는 교육환경이 요구된다.

다섯째, 새 천년 21세기 한국의 사명은 세계 속에서 한국이 가진 지구촌 자연환경에 대한 보존과 한국인의 의식문화의 성숙을 통한 보완적 세계가치관의 확립이다. 따라서 한국의 가치는 21세기를 향한 국민의 의식문화와 비전을 바로 세우고 이에 따른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있다.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특히 삼면이 바다이고, 지금은 타율적 섬나라이기도 한 한국 고유의 지정학적인 해양환경의 특성을 살리는 일이다¹⁴⁾.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인과 국가제도인 법문화의 조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정책과 국민의식의 형성이 요구된다. 예컨대 행정목적만을 위한 편의적 국가 형벌권의 행사보다는 국가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합의점의 도출과 법적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을 소홀히 하거나 사람의 생명을 돈만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 침해적 개발목적에 따른 행정형벌법규라든가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규정 등 자연환경과 인명을 경시하는 법을 개정하고,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국가가 자연환경의 적극적 보존과 인간성의 회복에 앞장서는 일이다.



14) 이경호, “21c 해양정책과 국가의 비전”, 한국해양대학교 사회과학논문집 제7집, 1999년 참조 (21세기는 해양 중심시대이다. 바다는 생산과 생활, 그리고 생명의 터전이다. 이 바다를 지키고, 가꾸고, 누리자. 해양은 지구촌 생명의 근원이고, 자원의 보고이다. 해양은 국가의 국력이고 국민의 국부이다. 지금 우리 나라는 반도국가가 아니라 섬나라이고, 해양국가이다. 해방이후 우리의 국력과 국부가 바로 해양에서 왔다. 38선과 휴전선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한국을 조선 세계 1위, 해운 세계 7위의 수출입국을 세웠다. 더 나아가 한국을 오늘의 개방국가, 해양국가, 통상국가, 국제항만도시국가로 만들었다. 세계로 나가는 길은 바다이고, 선진한국의 길이 해양에 있다. 우리 나라에 지금 필요한 중요한 것은 해양생명의식, 해양국부의식, 해양국력의식, 해양국가의의식 그리고 해양문화의식을 세우고 높이는 일이다. 해양의식을 상실하게 되면 국가선진화의 초석을 잃게 된다).

